

달러화 보유할수록 손해 커진다!

2006년 12월 1파운드 2달러 시대 도래 ... 11월30일 1.9550달러

1파운드가 2달러에 거래되는 상황이 2006년 안에 실현될 수 있을 것 전망이다.

파운드는 11월30일(이하 현지시각) 외환시장에서 달러에 대해 1.9550을 돌파했다. 환시장 관계자들은 2달러 근처를 파운드-달러 환율의 <심리적 저지선>이라고 표현했다.

관계자들은 “파운드가 현재의 상승추세로 가면 2006년 2달러에 거래될 것이 확실시된다”면서 영국이 1992년 9월 유럽환율체제(EERM)에서 이탈한 이후 달러에 대한 가치가 가장 높은 수준에 달했다고 지적했다.

파운드 가치는 2006년 들어 달러에 대해 14% 상승했다. 반면, 유로에 대해서는 2% 가량 상승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환율 추이를 보이고 있다.

1파운드 2달러 구도에 대해 환시장 관계자들은 파운드 자체의 강세에 달러 약세가 더해져 시너지 효과를 내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액션 이코노믹스의 국제통화시장 분석 책임자 로널드 심슨은 마켓워치에 “파운드 강세에 달러 약세가 겹쳐지면서 상승효과를 내는 것”이라면서 “현 추세로 가면 2006년 1파운드-2달러 환율 구도가 거의 확실하다”고 말했다.

마켓워치는 시카고 지역의 기업신뢰가 11월 둔화돼 3년여 사이 최저로 나온 것도 달러약세를 부추겼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بنك 오브 잉글랜드는 최근 영국 주택가격 강세와 관련해 인플레이를 우려하고 있으며, 특히 임금 상승으로 인한 인플레이 부담을 걱정하는 상황이라고 마켓워치는 분석했다.

금리도 영국이 5%로 미국 연방금리보다 0.25%p 낮은 상황에서 12월7일 بنك 오브 잉글랜드 통화정책회의가 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관측되는 점도 상기시켰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6/12/04>